

중동 리스크 대응 나선 경북도... 물가·에너지 총력 관리

버스·택시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수출 기업 물류비·보험료 지원 확대
석유 불법유통·가격 점검 강화



경북도는 지난 7일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 대응 분야별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경북도

경북도는 지난 7일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 대응 분야별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물가·고유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수출입 물류 차질이 이어지면서 민생과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회의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과 유가 급등에 대응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 애로 해소와 민생 안정, 에너지 공급 대응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강조됐다.

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버스·택시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4월 중 소득 하위 70% 등을 대상으로 총 4207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

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물가 모니터링 요원 141명을 투입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생필품 가격 점검을 강화하고 축제장 바가지요금 관리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동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171개 기업을 대상

으로 물류비 지원 한도를 업체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험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물류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세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경북버팀금융 우대 지원을 통해 자금난 완화

에도 나선다.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석유제품 불법유통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준수 여부를 지속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해 에너지 절감과 수급 안정에 대응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와 농업용 자재, 축산 사료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어업인에게는 25억 8000만원 규모의 면세유를 긴급 지원한다. 섬 지역 주민의 운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한 상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민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AI선박기자재 지원센터 구축

울산에 인공지능(AI) 선박기자재 실증 기반을 갖춘 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울산시는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도 조선해양설비 신규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서 'AI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총사업비 382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울산미포국가 산업단지 미포지구 내 약 2640㎡ 부지에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울산과학기술원이 주관하고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전문 기술 지원 체계로 운영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경주시

'경주페이'로 택시 결제 가능

경주시는 택시요금 결제 수단에 지역화폐 '경주페이'를 도입해 시민 편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28일 0시부터 시행되며, 지역 내 개인·법인택시 1,065대 전체에 적용된다.

시는 택시 내 경주페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차량을 가맹점으로 등록해 이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과 카드 중심이던 기존 결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 결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도, '피지컬 AI 혁신' 거점 만든다

산·학·연·관 전문가 모여 자문회의
AI·SMR 중점... 2030년 3조 투입

경남도가 2030년까지 총 3조원을 들여 경남을 '글로벌 피지컬 인공지능(AI)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본격화한다.

박완수 지사는 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경남은 원전·방산·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AI와 SMR을 핵심 축으로 산업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부 주제 발표와 2부 자문·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경남형 AI산업 육성 추진 방안과 핵심 유망 산업 육성 방안이 공유됐으며 '피지컬 AI가 여는 제조의 미래, 경남의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도

이어졌다.

2부에선 산·학·연·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해 제조 피지컬 AI 산업 메카 조성 방안, 중소·중견기업의 AI 전환(AI) 정책 방향, 전후방 산업 연계 방안 등을 놓고 심층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경남이 우주항공·방산·조선·원전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제조업 중심지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으면서도,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증 인프라 지원과 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 등 '현장 자동형'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완수 지사는 "기계·부품·소재 중심의 제조업이 밀집한 경남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충청남도 재난안전상황실 종합 모니터링시스템 준공식 모습.

충남도, 재난 대응 통합 플랫폼 완성

CCTV 6만7500대 모니터링 가능

충남도가 도내 약 6만 7500대의 CCTV를 통합해 재난·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입체 파악할 수 있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형·복합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7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준공식을 개최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소방·방재 등 전문 인력 5개 팀 21명이 4교대로 근무하며 재난 초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시군 스마트도시 안 전망 4만 3000여 대, 도 산불방지 상황실 150여 대, 국가교통정보센터 2만 4400여 대 등 총 6만 7500여 대의 CCTV를 연계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기상청 기상관측망까지 연동해 상황 인지 범위를 넓혔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노을 따라 걷는 완도... 해안 경관길 조성

대문리 일원서 당인리까지 명소화

완도군이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으로 총 153억 원을 투입한다.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은 완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일원에서 당인리까지 해안도로를 명소화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4개년(2024~2027)간 추진하며, 1단계는 '일몰 아트 공원', 2단계는 '갯바람 공원과 미소아트 공원', 3단계

는 '해안 경관길'(노을 전망대)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군은 기본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통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완료 후 지난해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83억 원을 투입, 1단계 사업인 '일몰 아트 공원'에 노을과 일몰 이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썬셋 머무름당'과 전망 공간, 포토존, 스마트 망원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고 해안 조망을 고려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 금융중심지 도약 투자설명회 성료

여의도서 수도권 금융기업 유치

부산시가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7일 오후 4시 20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 소재 자산 운용사, 벤처 캐피탈, 금융 기술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초청됐다. 설명회는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와 BIFC 1단계 63층에 조성한 금융 혁신 거점 '디스페이스(D-space)'로 수도권 금융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소개

▲국민성장펀드 및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안내 ▲해양 금융 특화 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의 부산 진출 사례 소개 ▲부산 금융 중심지 소개 및 투자 특전 ▲기업별 현장 목소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규제 특례 혜택을 중점 소개했다. 지역 기업 성장과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부산형 3대 혁신 모펀드',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안내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사천시가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경제 위기에 대응해 '사천사랑상품권 특별 프로모션'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1인당 구매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2026년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예정 규모는 총 200억원이며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관내 4997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울주군

명선도에 해상보행교 설치

야간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울산 울주군 명선도에 해상보행교가 들어선다.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 있는 명선도는 2022년 7월 야간조명 설치 이후 형형색색의 조명과 미디어 아트로 큰 인기를 끌면서 야간에만 22만여 명이 다녀갔다.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상시 입도가 어렵고 관광객 동선 정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시설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